

연예뉴스 HOT 5

브레이브걸스 등 '자랑스럽' 응원 메시지



브레이브걸스

병무청이 릴레이 병역 이행 응원 캠페인인 '자랑스럽(軍) 챌린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캠페인은 병역의무 이행을 앞두거나 복무 중인 국군장병,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에게 영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군통령'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와 에이핑크, 위클리, 강혜연, 배우 손현주, 조보아 등이 참여한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연예인 출신 병사 비투비의 임현식 상병(수도군단), 펜타곤의 조진호 상병(육군본부), 탄탄의 유창현(리키) 일병(국방부 근무지원단)도 참여한다. 19일부터 병무청 유튜브와 블로그 계정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아모르파티' 스태프 코로나 양성...촬영 중단

SBS 아침드라마 '아모르파티-사랑하자, 지금'(아모르파티) 일부 스태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이 중단됐다. SBS는 15일 "아모르파티' 스태프 중 한 명이 양성 확진을 받은 '타 프로그래밍'의 스태프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진행, 1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SBS 측은 이어 "선제적으로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 아이유 '라일락' 리뷰 눈길



아이유

미국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립스'가 가수 아이유의 정규 5집 '라일락'에 대한 리뷰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문은 최근 '20대 아이유의 기발한 작별'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29세인 그는 한국의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배우다"라며 '국민 여동생'을 소개했다. 이어 "그의 음악적 능력의 진정한 깊이를 말해준다. 4년간 기다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앨범에 대해 공개했다. 또 "라일락"은 아이유가 20대에 대한 감상을 담아내고, 삶의 다음 장으로 들어가며 가수로서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 앨범"이라고 호평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6월17일 첫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 등 의사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6월17일 첫 방송한다. 드라마는 의대 동기 5인방과 올제병원 식구들이 그대로 출연하고 연출과 대본 역시 신원호 PD·이우정 작가 콤비가 호흡을 맞춘다. 시즌2도 시즌1과 마찬가지로 주1회 편성될 예정이다. 신 PD는 "작고 소소한 이야기를 더 따뜻하고 농밀하게 그려낼 생각"이라며 시즌2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시즌2는 지난해 말 첫 촬영을 시작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다.

강소라, 결혼 8개월만에 딸 출산



강소라

연기자 강소라가 결혼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임아가 됐다. 15일 소속사 플럼에이앤씨는 "강소라가 이날 오전 득녀했다"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강소라는 지난해 8월 8살 연상의 한의사와 결혼해 같은 해 11월 임신 사실을 알렸다. 최근에는 활동을 중단하고 태교에 집중해왔다. 강소라는 2009년 영화 '4교시 추리영역'으로 데뷔해 드라마 '닥터이방인' '미생'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에 출연했다. 28일 개봉하는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도 특별출연했다.

채널A '강철부대'서 반전 매력남 트로트 가수 박군(박준우)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출연 이렇게 사랑 받을 줄 몰랐죠



"승패보단 특전사 투지 알리기 집중 특전사 출신 선후임들 댓글에 뿌듯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 응원 부탁"

**CHANNEL** "단! 결!" 육군 특전사령부(특전사)의 경례 구호 속에 트로트 가수 박군(35)은 없다. 오로지 15년 경력의 '박준우' 예비용 상사만 있을 뿐이다. 히트곡 '한잔해'로 온갖 무대를 누벼온 박군이 전역한 지 2년 만에 다시 군복을 꺼내 입었다.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병대 수색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해남구조전대(SSU) 등 6개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부대의 이름을 걸고 경쟁을 펼치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하기 위해서다.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뛰어든 덕분에. 지난달 23일 방송을 시작한 4회 만에 4.9%(닐슨코리아)까지 시청률이 상승한 프로그램에서 특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171cm의 결코 크지 않은 신장이지만, 탁월한 전략으로 특전사팀을 이끌고 있다. 시청자는 물론 다른 부대 예비역들로부터 "공연 무대와와는 판판인 '반전 매력'에 반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15일 서면으로 만난 박군은 "시청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다"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프로그램에 합류하기까지 고민이 따랐기에 만감이 더욱 교차하는 듯했다.

"'강철부대' 출연이 영광인 동시에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다. 전우들을 믿고 조직의 단결을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전사 출신 아버님들부터 후임들까지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아줘 정말 뿌듯합니다."

무게 40kg이 넘는 타이어를 어깨에 멘 채 뛰고,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드는 등 촬영 도중 겪은 갖은 고생은 "특전사의 정신력과 불굴의 투지를 널리 알린 계기"라는 자부심으로 진작 잊었다. 정태균·김현동·박도현 등 동고동락한 팀원들과도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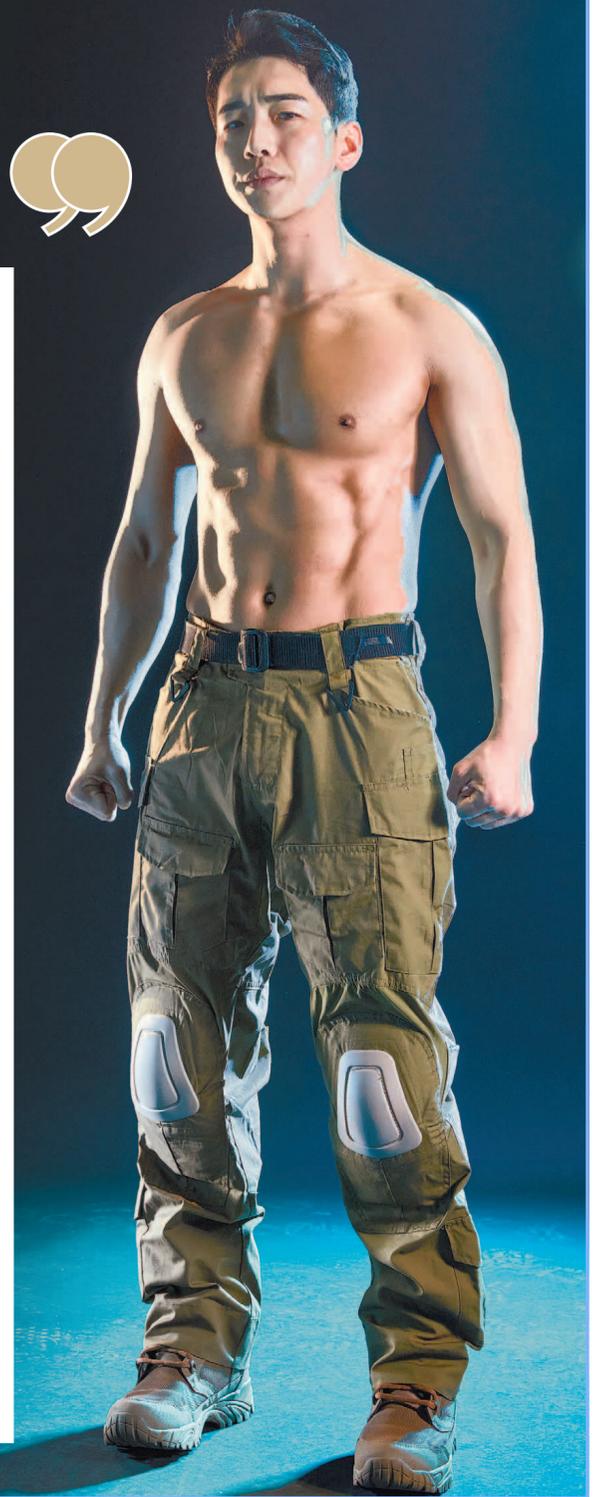
"특수부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적진의 중심부에 목숨을 걸고 깊숙이 침투해 적을 제거하는 자랑스러운 부대입니다. 개인의 역량은 다르지만, 팀을 중심으로 모든 명령과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배짱과 무한한 의지를 갖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 '정글의 법칙'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얼굴을 내비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사회에 나온 지 2년차인 '신인'의 서툰 매력을 좋게 봐주시는 것 아닐까 싶다"며 겸손해하면서도 "꾸밈과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15년 군 생활로 얻은 신념과 의지를 따라" 시청자에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사실 '강철부대'에서 승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부대원들의 모습에 신심과 낭만을 느끼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철!"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트로트 가수 박군은 15년 경력의 육군 특전사령부 예비역 상사로서 채널A '강철부대'에 출연 중이다. "패기와 정열이 넘치는 특수부대 예비역들을 힘껏 응원해달라"며 프로그램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채널A



이적설 논란 겹친 김정현 '척척산중'

소속사 오앤과 전속계약 5월 만료 문화창고와 사전 논의해 관계 위반 오앤, 연매협에 진정서...갈등 악화

연기자 서지혜와 교제 중이라는 시선이 제기된 뒤 그 해명 과정에서 소속사 이적설이 불거진 김정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그의 옛 연인이었던 서지혜에게까지 여파가 미치며 갖은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진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김정현은 '사랑의 불시착'에 함께 출연한 서지혜와 연인관계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서지혜의 소속

사인 문화창고가 "김정현이 소속사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 서로 상의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며 힘을 보탤다. 이에 따라 김정현이 현 소속사 오앤엔터테인먼트(오앤)와 맺은 전속계약 기간이 5월 끝나면서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오앤의 한 관계자는 "김정현이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둔 시점부터는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은 물론 관련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업계 '불문율'과 관련해 꽤 신의를 저버렸다"며 그가 다른 기획사와 접촉한 시점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드러냈다. 이어 전발 김정현이 2018년 드라마 '시간' 출연 당시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 뒤늦은 사과문을 낸 것에 대해서도 "외



김정현

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앤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에 관련 진정을 냈다. 연매협은 조만간 공식 절차를 거쳐 상법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연매협의 한 관계자는 "어느 일방에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향후 활

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로 분쟁 중인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에 따라 민사소송 등 법률 소송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연예계에서는 김정현과 오앤의 갈등이 원만하게 봉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연예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다수 연예인과 기획사가 연예계 관계를 존중하며 표준계약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왔다"면서 "김정현을 둘러싼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 보인다. 적어도 이번 사태가 그의 향후 행보에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사랑의 불시착'이 이끄는 日 콘텐츠 지각변동

넷플릭스 '연간 가장 많이 본' 1위 한류 콘텐츠 소비층에 20대 확장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 방송 판도와 콘텐츠 지형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한류를 재점화한 한국드라마의 힘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 등 한

국드라마에 대한 현지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이를 선보인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영향력을 맹렬히 키워가고 있다. 동시에 한국드라마를 주요 콘텐츠로 선보여온 현지 방송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손예진·현빈 주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지난해 2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돼 '연간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올랐다. '이태원 클라쓰'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또

다른 한국드라마도 현지 인기를 끌면서 한류 콘텐츠를 내세운 넷플릭스가 큰 힘을 발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넷플릭스가 2015년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5년 만에 50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다"면서 "한류 드라마가 주요 가입 동기 가운데 하나이다"고 밝혔다. 또 현지 한국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층이 이전의 30대 이상 여성에서 최근 20대까지로 확장되면서 영향력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콘텐츠 지형의 변화에 따라 현지 방송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2003년 '겨울연가' 이후 한국드라

마를 주요 콘텐츠로 삼아왔던 현지 위성방송을 비롯한 방송업계가 한국 방송사의 드라마는 물론 자체 투자·제작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한 넷플릭스의 영향력에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8일 일본 도쿄에서 막을 연 '사랑의 불시착' 전시회가 오사카로 무대를 옮겨 3월28일까지 펼쳐졌다. 뒤이어 21일부터 5월4일까지 후쿠오카, 5월8일부터 6월6일까지 나고야에서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드라마의 인기를 재확인시키고 있다.